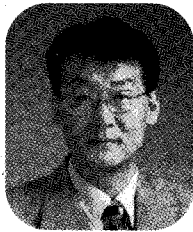


종돈 분야의 2000년 결산과 2001년 전망



김윤식 부장
한국종축개량협회

1. 머릿말

금년도에 종돈개량사업은 구제역 발생시 모든 농가를 방문 할 수 없었던 4월부터 많은 걱정을 했으나 그때의 걱정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사업을 달성했다. 개량사업의 기본인 혈통등록사업 및 농장검정사업은 전년도보다도 많은 실적을 올리게 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2000년도에는 등록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자돈등기」제도를 신설하여 혈통등록증의 신뢰를 높이고 개량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고, 기존 고등등록은 혈통등록을 하고 난 후 능력과 심사에 의해 고등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자돈등기된 자돈이 능력과 심사에 의해 바로 고등등록 될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2000년도 부터

농장검정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검정사업비 지원을 결정한 일이다. 종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검정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와 관련단체 및 농장간의 의견이 분분 했지만 어찌 되었던 검정사업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종돈개량사업은 매우 빠른속도로 발전될 것을 확신한다. 이제는 정부나 지역자치단체에서도 돼지개량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제주도에서는 혈통등록요금을 전액 보조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도 모돈갱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행정기관에서도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본회와 한국종돈업경영인회에서 공동으로 종돈업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실시하여 신기술을 보급하고 업계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종돈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전년도에 1억234만원을 모금하였고, 금년도에도 1천468만원을 모금해 방역본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 지역 종돈



장은 종돈을 분양할 수 없어 손해가 많음을 직시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비육돈가 보다 순종돈은 17만원, F1은 8만원 정도를 보상하여 수매 하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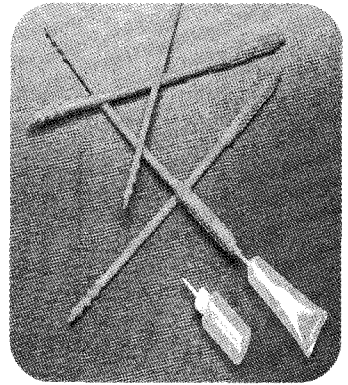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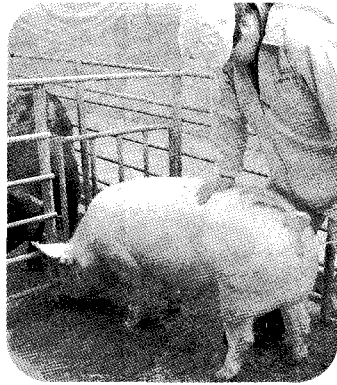
또한 지난 99년 8월부터 「종돈정보」란 월간지를 제작하여 1,000두 이상 사육하는 양돈농가 및 관련기관에 3,000부를 무상 공급함으로써 양돈농가는 종돈장 및 종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량기술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계속하여 마련하고 있다.

2. 2000년도 종돈개량사업 결산

본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10월말 기준 종돈개량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은 90개 농장에서 혈통등록 40,801두, 고등등록 4,532두로 45,333두를 실시했고, 농장검정은 17개농장에서 19,243를 실시했다.

심사는 주로 수입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1,316두를, F1증명은 8,195두를 실시 했다. 그리고 종돈의 수출입 내역을 살펴보면 수출은 2개농장((주)다비인티에서 80두, 육종회사 구시월드에서 120두)에서 200두를 홍콩에 수출했으며, 수입은 39개농장에서 미국·캐나다·영국·덴마크·필란드로 부터 962두(검역소에서 도태한 두수 제외)를 수입했다.

그외에도 이동·재발행이 5,139건을 실시하였으며, 종돈인공수정센터 15개소에서 정액혈통 및 인공수정증명서 26,702매, 정액능력확인스티커 230,924매를 발급했다. 금년도 종돈개량사업은 등록·검정·F1증명 등 모든부분에서 만족할 정도로 확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내 양돈농가들도 종돈 구입시 검정성적을 보고 구매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3. 2001년도 종돈개량사업 계획

2001년도 종돈개량사업 계획은 자돈등기와 능력검정사업 및 정액능력확인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추측한다. 자돈등기를 실시함으로써 종돈의 혈통 신뢰성을 높이고 또한 등록회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8,000복을 예상하였으며, 농장검정두수를 늘려 27,000두로, 정액능력확인 300,000매로 확대 했다. 종돈등록에서 혈통등록은 31,000두, 고등등록은 4,000두, F1등록은 2,000두를 계획하고 있다.

사실 현재에도 돈가가 좋지않아 종돈업자나 양돈업자 모두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해서 종돈개량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염려하고 있으나, 종돈농가의 농장검정 필요성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리한 계획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검정사업의 확대는 자체 종돈선발을 강화하여 우수한 종돈을 확보하는 길이고, 수입종돈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며, 국내 양돈농가들도 종돈 구입시 검정성적을 보고 구매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돈**